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8월 일자리 공고 숫자 예상보다 상회... 화이트 칼러직 꺾춤
- WSJ: 미국인들, 퇴사율 줄어든다
- Bloomberg: 클리브랜드 은행총재, “올해 한번더 금리 인상 필요할 수 “
- WSJ: 연준, 홍보 활동 강화한다

[의회]

- WSJ: 하원 민주당이 하원 의장 ‘운명’ 결정할 수 있다

[부동산]

- Bloomberg: 뉴욕시, 새로운 주택 개발 방안으로 주택난 해소 가능할까?
- WSJ: 월스트리트, “미 주택들 과대 평가되었다”

[자동차 파업]

- WSJ: 포드와 GM, 파업 여파로 500여명 추가 해고

[인공지능]

- Bloomberg: JP 모건Dimon, “AI 덕분에 다음 세대부터 주당 3.5일 근무”

[학자금 대출 상황]

- WSJ: 학자금 부채는 가족에 계속 부담 준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기업들의 사무실 복귀 강화 조치에도 효과는 미미해
- Bloomberg: 메이시스, 2025년까지 30여개 소형 매장 개점
- WSJ: 월마트, 직원들에게 새직책과 임금 제공 변경
- CNN Business: 스타벅스, 온난화에 대비해 새로운 커피 품종 개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US Job Openings Top All Forecasts as White-Collar Positions Jump 8월 일자리 공고 숫자 예상보다 상회... 화이트 칼러직 꺾춤

- 화이트 칼러 직종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8월 미 일자리 공고 건수가 예상 외로 늘었다. 노동 수요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 일자리 공고 건수가 7월의 수정치 8백92만개에서 8월에 9백61만개로 늘었다고 연방 노동통계(JOLTS)는 밝혔다. 해고는 줄고 채용은 증가했다.
- 이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보고서 발표후에 국채 금리는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하락했다.
- 전체 고용숫자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숫자를 측정하는 이른바 이직률은 2020년 이래 가장 낮은 2.3%를 기록했다. 이직률이 적다는 것은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줄어든 것으로 의미한다.

Bloomberg 기사

WSJ: Americans' Growing Reluctance to Quit Their Jobs, in Five Charts 미국인들, 퇴사율 줄어든다

- 미국인들의 퇴사율은 7월에 2.3%로 작년 4월의 3% 정점에서 줄어들었다. 올 여름 수치는 팬데믹 시작되기 전의 수치로 회복되었다.
- 코로나의 급격한 침체에서 벗어났을 때 기업들은 복리 후생을 개선시키며 채용 유치를 강화했다. 이를 이용해 많은 이들이 더 나은 보수를 위해 이직했다.
- 최근에는 직장을 옮길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퇴사율이 둔화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Fed's Mester Says One More Rate Hike May Be Needed This Year

클리브랜드 은행총재, “올해 한번더 금리 인상 필요할 수 “

-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인Loretta Mester가 말하기를 연준은 올해 한차례 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후에 2% 목표를 회복되기 위해 일정기간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그는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계속들어 오는 경제 지표들 상황에 달려있고, 긴축 여파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침체, 자동차 파업 계속 가능성, 정부 섀다운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The Fed Seeks to Up Its Influencer Status

연준, 홍보 활동 강화한다

- 파월 의장은 새로운 Instagram 계정을 동영상과 함께 개설하면서 소셜 미디어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 그는 이 동영상에서 연준은 건전한 경제와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준은 또한 원래 트위터로 알려진 X의 대안중에 하나인 메타 플랫폼의 Treads에도 가입했다. Treads에 가입하려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야 한다.

WSJ 기사

[의회]

WSJ: House Democrats Could Decide Kevin McCarthy's Fate
하원 민주당이 하원 의장 '운명' 결정할 수 있다

- 오늘 화요일 늦게 하원은Kevin McCarthy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같은 상황은 같은 공화당 의원인Matt Gaetz가 하원의장을 몰아내기 위해 투표를 강제로 실시하는 동의안을 제출한 후에 이루어졌다.
- 그런데 투표 결과와 관련 공화당이 하원에서 겨우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의장의 운명을 결정할 스윙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WSJ 기사

[부동산]

Bloomberg: Can NYC Ease Housing Costs With 'City of Yes' Proposal?
뉴욕시, 새로운 주택 개발 방안으로 주택난 해소 가능할까?

- 뉴욕시 시장은 수천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이른바 "City of Yes" 방안을 제안했다.
- 이는 zoning 제한을 해제하여 15년동안 10만채 규모의 새로운 주택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 대로 진행된다면 임대료 부담이 큰 뉴욕시의경우 주택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뉴욕시장이 이같은 계획이 실제 충분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강력한 드라이버를 걸수 있을지 관계 전문가들은 구심을 갖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Wall Street Thinks America's Homes Are Overvalued
월스트리트, "미 주택들 과대 평가되었다"

- 요지: 평균 단독 주택이 가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큰 투자자들은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있다.
- 투자자들은 팬데믹 기간중에 수십억 달러의 단독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이유는 재택 근무자들이 보다 넓은 주거 공간을 위해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에 현혹되거나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주택 비용이 상승하고 임대료 상승이 완만해지면서 좋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지면서 후퇴했다.

- 대형 건물주들이 2021년말에 최고치인 미국 주택의 2.4%를 구입했으나 올해 2분기에는 그 비율이 0.4%로 크게 준 것으로 John Burns Research & Consulting의 데이터는 밝혔다.

WSJ 기사

[자동차 파업]

WSJ: Ford, GM Lay Off About 500 Factory Workers as UAW Strike Effect 포드와 GM, 파업 여파로 500여명 추가 해고

- 포드와 GM이 진행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과 관련된 500여명의 직원을 추가로 해고했다.
- 어제 월요일 포드는 지난주 금요일에 파업이 시작된 시카고의 SUV 공장 근처의 스탬핑(stamping) 공장과 엔진 공장에서 작업이 중지됐으며, 330여명의 직원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 GM 또한 어제 월요일 Cleveland 근처의 공장에서 130명의 직원을 인디애나 근처 공장에선 34명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두 공장은 GM 조립 공장에서 사용되는 철제부품을 만들던 공장으로 파업 이후에 작업이 중단됐었다.
-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공장에서 파업 중인 노조원의 수는 현재 대략 2만 5천여명이다.
- 지난 월요일의 해고를 포함하면, 파업의 여파로 현재까지 6천여명 이상의 직원이 해고당했다.

WSJ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JPMorgan's Dimon Predicts 3.5-Day Work Week for Next Generation Thanks to AI JP 모건 Dimon, "AI 덕분에 다음 세대부터 주당 3.5일 근무"

- JP모건 체이스 CEO인 Jamie Dimon은 그의 은행에서 이미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일부 직업을 소멸시킨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향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어제 월요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는 그는 인공지능 덕분에 아이들은 암 걱정 없이 100세까지 살 수 있으며 일주일에 3.5일만을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인공지능 기술이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생산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위험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전에 말한 바 있다.

Bloomberg 기사

[학자금 대출 상황]**WSJ: Student Debt Runs in the Family**
학자금 부채는 가족에 계속 부담 준다

- 학자금 용자 비용은 젊은 미국인에게만 여파를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한꺼번에 영향을 끼치면서 돈을 모으고 은퇴준비하는데 방해가 된다.
- 34세 미만의 학자금 대출자와 35세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StudentAid.gov는 밝혔다. 그러나 35세 이상의 그룹이 갚지 못한 학자금 부채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다.
- 두 그룹 모두 이번달에 1조7천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만기가 올경우 매달 추가 상환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Tougher Return-to-Office Policies Are No Remedy for Half-Empty Building**
기업들의 사무실 복귀 강화 조치에도 효과는 미미해

- 대도시에서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는 여전히 2019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들의 강한 조치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 게다가, 시 관계자와 부동산 소유주들은 위축되는 경제에 코로나 감염률의 증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 많은 우량기업의 임원들은 이전보다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기업은 직원들이 일부 시간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태이다.
- Kastle Systems에 의해 조사된 미국 10 대 도시의 평균 사무실 복귀율은 2019년 9월 말 수치의 50.4%에 불과하며 현재는 50%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실망스러운 복귀율은 공실률이 거의 정점을 찍어 오피스 건물주들에게 타격이 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Macy's to Triple Small-Format Store Count in Move Away from Malls

메이시스, 2025년까지 30여개 소형 매장 개점

- 메이시스가 2025년 가을까지 새로운 30여개의 소형 매장을 개점한다. 이는 메이시스가 그동안 고집했던 대형쇼핑몰의 사업에서 벗어나 소형매장을 통해 시장 입지를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오늘 화요일 메이시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계연도 1년 또는 그 이상 유지된 소형 매장의 경우 소유 및 라이선스 기준으로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이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 지난 3년간 메이시스는 Polaris라고 알려진 수익성 전략의 일부로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80여개의 대형매장을 폐업했다.

Bloomberg 기사

WSJ: Walmart Changes Pay and Titles for Corporate Staff

월마트, 직원들에게 새직책과 임금 제공 변경

- 많은 월마트의 직원들이 새롭게 바뀐 직책과 변경된 급여 패키지를 받을 예정이다. 월마트가 인건비를 관리하고 인력 구조를 간소화하는데 따른 것이다. 때문이다.
- 11월이 되면 월마트와 Sam's Club의 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책과 급여를 기준으로 더 적은 그룹으로 재분류가 된다. 대략 2천 명의 근로자나 전체 직원의 4%는 이런 변화로 인해 더 적은 주식 보상을 받게 된다.
- 글로벌 총보상 책임자인 Kim Lupo는 월마트가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사업들을 인수하면서, 월마트의 역할이 다양하게 됐기에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Starbucks scientists are developing climate-proof coffee

스타벅스, 온난화에 대비해 새로운 커피 품종 개발

- 커피는 기르기 까다로운 작물이며, 기후변화는 커피 사업과 농부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 전 세계 커피의 3%를 구매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온난화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아라비카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 스타벅스는 수백 가지의 품종을 조합한 끝에 회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맛과 향을 가진 6가지 품종을 선정했다. 스타벅스의 새로운 6가지 품종은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교육 및 연구 센터인 Hacienda Alsacia의 농부들에게 제공된다.

- 스타벅스의 글로벌 커피 부문에서 부사장을 맡고 있는 Michelle Burns는 현재 연구하고 테스트 중인 품종 중 일부는 3~4년이 아닌 2년 주기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 고위 인사들 "고금리 당분간 유지" 경고

바 부의장 "현시점 중요한 것은 추가 인상 여부보다 유지 기간" '매파' 보먼 이사는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입장 재확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높은 수준의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바 부의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경제학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